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강의

주제별 세부 내용 안내서

2026.1.11.
정환빈 이-팔 분쟁 독립연구자

이 문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강의 구성 안내서"의 불임자료이며,
각 주제별로 세부 내용을 안내합니다.



1. 공통 주제

1) 미디어를 넘어 현장에서 본 팔레스타인

우리에게 팔레스타인은 '분쟁'이란 베일로 싸인 나라입니다. 2023년 10월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은 이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팔레스타인은 대부분의 주민이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전까지 서안지구는 미국보다도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통념과는 달리 종교적 갈등도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인구의 1% 내외는 기독교도입니다. 이들은 무슬림 율법에 종속되지 않으며, 독자적인 시장(Mayor) 선출 및 주류, 돼지고기 취식 등이 모두 허용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어째서 분쟁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2) 숙명적인 종교적 갈등?

우리 사회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5천 년 역사의 숙명적 갈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을 박해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기록했습니다. 카이로 게니자 (Geniza) 고문서를 연구한 유대인 역사학자들은 이슬람 지역이 기독교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관용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분쟁을 만들어낸 3요소 : 민족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유대인과 아랍인 간에 정치적 갈등이 빚어진 것은 1880년대부터입니다. 당시 많은 유럽인들이 유대인은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차별했습니다. 이에 소수의 유대인이 유대인만의 민족과 국가를 만들자는 시온주의(Zionism)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그러한 민족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고, 토착민인 아랍인들을 추방 하려 했습니다.

한편, 1차 대전(1914-1918) 중에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고, 유전 지대인 이라크로 연결되는 군사적 요충지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인 프랑스 역시 팔레스타인을 탐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온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팔레스타인에서 유대 민족의 고향을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아랍인들은 독립을 요구했으나, 유대 민족의 대의가 중요하다는 영국의 변명에 아랍-유대 간에 민족적 증오가 싹트게 됩니다.

1947년에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분할해 56%의 땅에서 유대 국가를 세우기로 합니다.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만의 민족 국가를 세우고자 인종청소(ethnic cleansing)를 저질렀고,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쫓겨나 반영구적인 난민이 되었습니다.

4) 팔레스타인인들이 투쟁하는 이유

1948년에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난민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그 수는 이제 7백만 명을 넘습니다. 유엔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지속적으로 인정 했으나,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은 서안과 가자지구를 점령해 주민들을 추방하고 토지와 수자원 등을 빼앗고, 유대인들의 마을을 지었습니다. 1987년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규모로 봉기해 평화 협상이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서안과 가자지구의 온전한 독립을 거부하고, 난민의 귀환도

반대했습니다. 2012년, 유엔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이후에도 팔레스타인 정부는 주권이 심각히 제약되며, 서안지구의 60% 이상은 이스라엘이 직접 통치 중입니다. 이곳에서 70만 명의 유대인이 400여 개의 마을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와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으나, 2007년부터 육해공이 모두 봉쇄당해 심각한 경제난에 빠졌습니다. 2022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65%가 식량이 부족하고, 실업률은 45%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자원 수탈, 인권 억압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2. 확장 모듈 Type A : 공통 주제 결합형

위치	주제	내용	시간
1	현지 생활 경험	팔레스타인인들의 일상 소개 및 편견 타파	10~15분
		많은 한국인이 팔레스타인을 미디어로만 접하다 보니 오해가 가득합니다. 일각에서는 아랍인은 계을러서 가난하다거나, 종교적으로 극단적이라는 등 다양한 편견도 보입니다. 연사가 직접 팔레스타인에서 살면서 보고 겪은 여러 일화를 소개하며, 편견을 걷어봅시다.	
2	성경적 역사	성경의 기술과 고증적 역사의 차이	10분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까지 통치했다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이야기 등 성경의 여러 서사는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유대인의 절대적인 권리로 응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고학, 역사학, 성경학계의 주류 해석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2	공통의 성지	무슬림의 예루살렘 지배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	5분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의 공통의 성지입니다. 이 때문에 분쟁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역사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성지로 인한 갈등은 없었고, 유대인들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의 박해에서 구원해 주었다고 인식했습니다.	
2	유대인 박해	기독교·이슬람권에서의 유대인 박해 비교·분석	10분
		중세 시절 대부분의 유대인은 기독교 유럽과 중동의 이슬람권에서 거주하며 많은 박해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현대 이스라엘 건국의 정당성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박해가 있었고, 얼마나 피해가 심각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3	시온주의의 다양성	다양한 형태의 시온주의와 함의	15분
<p>시온주의는 흔히 유대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정치적 운동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시온주의자들 중에는 비정치적·문화적 운동만 옹호한 자들도 있었고, 팔레스타인으로의 이주나 유대 국가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때때로 시온주의의 정치적 목적을 감추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p>			
3	위임통치 제도	국제연맹규약을 위배한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10분
<p>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은 1922-23년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권리와 의무를 영국에 위임했습니다. 이는 토착민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선진국이 주민들의 복지와 개발을 증진하라는 국제연맹규약 제22조에 근거하는데,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현장(mandate)은 해외 유대인의 이주와 발전을 우선시했습니다.</p>			
3	최초의 소요	영국의 지배 직후 발생한 소요에 대한 영국의 진단	10~15분
<p>영국은 1차 대전 중 팔레스타인을 점령했고, 그 직후인 1920년과 1921년에 아랍 대중이 유대인을 공격하는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현상에 놀란 영국은 위원회를 설립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위원회는 책임을 아랍인이 아닌 시온주의자들로부터 찾았습니다.</p>			
4	사브라-샤틸라 학살	1982년 이스라엘의 민간인 3,000명 학살 사건	10분
<p>1982년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거점으로 삼은 레바논을 공격해 점령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중재에 나서 민간인에 대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PLO가 철수하도록 설득했습니다. PLO가 철수하자 이스라엘은 베이루트의 사브라 구역과 샤틸라 난민촌을 포위하고, 기독교도 민병대를 무장시켜 3,000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p>			
4	오슬로 협상과정	오슬로 협상과정의 쟁점 및 정치적 함의	10분
<p>오슬로 협상과정(1993-2000)은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영토, 난민의 귀환 등에 대한 “최종 지위” 협상과, 과도기 중에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임시적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최종 지위 협상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정부는 당시 합의된 “임시적 조치”에 근거해 주권이 심각하게 제약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p>			
4	이스라엘의 인권 억압	유엔 보고서로 살펴보는 인권 억압 사례들	10~20분
<p>1967년에 점령이 시작된 이래 유엔의 여러 인도주의 기관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한 인권 억압 사례들을 조사하고 보고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주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적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유엔 보고서를 읽으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봅시다.</p>			

3. 확장 모듈 Type B : 연관 주제 추가형

위치	주제	내용	시간
5	가자지구 전쟁	전쟁의 목적 등 주요 쟁점 분석	15~30분
		<p>하마스는 전력상 열세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전쟁이 2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이 질문은 국내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하마스 궤멸과 인질 구출을 전쟁 목표로 제시했으나, 대부분의 사망자는 민간인으로 확인되었고, 집단학살(genocide)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주민들을 민간 방패로 희생 시켰다고 항변합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p>	
5	인도주의 지원 현황	전쟁 피해 규모 및 인도적 지원의 한계	10~20분
		<p>이번 전쟁은 민간인에게 집중된 심각한 인명 피해와 더불어 가자지구의 생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전체 건물의 80% 이상이 파괴되고, 유일한 식수원인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생존을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했고, 2025년 여름경에 200명 이상이 아사했습니다. 전쟁 피해 현황과 인도적 지원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알아봅시다.</p>	
5	한/두 국가 해법	정치권이 논의하는 평화 해법의 논쟁점 및 한계	10분
		<p>국제사회가 구상 중인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법은 이스라엘과 병행하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이며, 이를 '두 국가 해법'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두 국가 해법은 단순히 국가를 세우느냐 마느냐의 논쟁이 아니라, 그러한 국가가 어떠한 영토적 경계와 주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한편,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학자와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이 하나의 국가에서 평등하게 살 권리를 인정하는 '한 국가 해법'이 선호됩니다.</p>	
5	국제정치 이해관계도	국가별 입장 및 이해관계	10~15분
		<p>이스라엘은 1948년 인종청소와 난민의 귀환 거부, 민간인 학살, 서안과 가자지구 군사점령, 자원 수탈, 주민 추방, 유대인 마을 건설 등 국제법 위반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구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스라엘과 연대하는 것일까요? 또한, 아랍 국가들이나 그 밖의 무슬림 국가들은 왜 팔레스타인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지 국제정치의 이해 관계를 파악해 봅시다.</p>	
5	유엔 체제 한계	유엔의 팔레스타인 문제 접근법 및 UNRWA 논쟁	15분
		<p>1948년에 영국이 국제연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포기하고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한 이래 팔레스타인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는 유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였으나,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미온적이었습니다. 대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기구(UNRWA)입니다. UNRWA는 이번 전쟁에서 하마스와 공모했다는 혐의로, 이스라엘로부터 테러 단체로 지정되어 탄압받고 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쳐 봅시다.</p>	

5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귀환권의 정치적 함의와 본질에 대한 인식 전환	15~20분
<p>1948년에 쫓겨난 75만 명의 난민은 오늘날까지도 고향에 돌아갈 권리를 부정당한 채 난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수는 이제 7백만 명을 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들의 귀환을 계속해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967년에 전쟁을 피해 피란길에 올랐거나, 이스라엘군이 직접 추방했던 30만 명의 난민들이 ‘서안지구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비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데도 말입니다. 난민 문제는 이-팔 분쟁의 본질을 응축한 사안으로서, 분쟁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도 찾게 해줍니다.</p>			
5	팔레스타인 국내 정치	파타-하마스의 정치적 분열 구조	10~15분
<p>오랜 세월 국가 없이 민간단체들이 투쟁을 이어온 팔레스타인 국내 정치 환경은 복잡합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정부는 야세르 아라파트가 창시한 정당 ‘파타(Fatah)’가 주도하고 있으며 평화 협상을 지향합니다. 반면, 하마스(Hamas)는 무장투쟁을 옹호하며 2006년 총선에서 승리, 이듬해부터 가자지구를 실효 통치 중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왜 파타가 아닌 하마스를 지지하게 되었는지 등 국내 정치적 환경을 들여다봅시다.</p>			
5	유대인의 시각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팔 분쟁에 대한 이해	15분
<p>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등에 충격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묻곤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은 매우 다양합니다. 전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도, 강하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민간인 학살 옹호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관점에 크게 어긋나는 관점에는 어떠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지 알아봅시다.</p>			
5	한국 현대사 비교	일제 강점기~분단 고착화 과정의 유사성	10~20분
<p>팔레스타인은 ‘멀고도 먼 나라’라고 소개되지만, 사실 유사한 정치적 역사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일례로, 조선인들은 1919년 파리평화회의에서 자결권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참가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사절은 영국에 의해 출국을 금지당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분단되고, 6·25전쟁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외세의 개입과 강제력으로 팔레스타인도 분단되고, 인종청소를 겪은 재앙의 기억을 공유합니다.</p>			
5	미디어 프레임과 표현	언론 보도의 종립성 훼손과 정보 왜곡 사례	10~30분
<p>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보도할 때 서구 언론에 의존합니다. 그 과정에서 편파적인 보도가 인용되곤 합니다. 가령, 이번 전쟁 중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철수를 포함하는 완전한 휴전을 거듭 제안했으나, 이스라엘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언론은 이스라엘이 제시한 ‘군대 주둔 하의 임시 휴전’을 하마스가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물게는 언론이 왜곡된 정보를 담은 해외 언론 기고글을 그대로 실어 전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례를 직접 살펴보며 문제 의식을 가집시다.</p>			